

최근 한국사회에서 ‘여성혐오(misogyny)’ 라는 단어가 인터넷과 각종 매체를 통해 퍼져나가면서 뜨거운 논쟁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여성혐오 논란은 주로 온라인 공간에서 두드러지고 있으며(이나영, 2016), 그 개념과 정의에서부터 시작하여 여성혐오가 표현되는 양상까지 많은 부분에 걸쳐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여성혐오는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도 사례를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오래된 개념으로써 서구에서는 이미 200~300년 전부터 이에 대한 저항운동이 시작되었으며 중요한 사회문제로 인식되어 왔다(김희강, 2006). 마찬가지로 Holland(2006)는 여성혐오를 세상에서 가장 오래되고 심오한 편견이자 비이성적인 믿음으로써 종교, 신화, 문학, 학문 등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되어 서사화 되어왔다고 주장했다. 즉, 여성혐오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존재해 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고전적이고 무의식적인 개념이 최근 한국 사회에서 재조명 되고 있는 것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기존 문헌들을 고찰해 볼 때, 여성혐오에 대한 개념의 확장과 새로운 시각은 이 논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성혐오라는 단어는 전통적으로 여성에 대한 미움과 증오를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김수아, 2015). 그러나 이는 단순한 사전적 정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현대사회에서의 여성혐오는 단순히 여성을 싫어하는 것만을 뜻하지는 않는다. 여성혐오를 사전적 의미로 해석함으로써 많은 남성들은 자신이 여자를 싫어하지 않기 때문에 여성혐오를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거나(이나영, 2016), 여성혐오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길 수도 있다(김수아, 2015). Ueno(2012)는 현대사회의 여성혐오에 대해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주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여성을 타자화, 객체화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성별에 우열을 매겨 주체가 되는 남성 대비되는 존재로서의 부가적인 여성으로 바라보는 모든 관점도 여성혐오에 해당한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의 여성혐오란 여성을 성적대상이나 소유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을 포함하며 여성을 열등한 존재로 간주하는 모든 행위와 사상을 일컫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에 따르면 남아 선호사상과 남녀차별이 만연해 있는 우리나라에서 여성혐오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은 매우 당연한 현상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서 발표하는 남녀 간의 불합리한 격차를 뜻하는 젠더격차지수(Gender Gap Index)를 살펴보면 한국은 전체 144개국 중 116위로 매우 성차별적인 사회경제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16). 게다가 이 수치는 2008년 100위권 밖으로 밀려난 뒤로 매년 떨어지고 있는 추세로 우리나라 여성의 인권은 오히려 점점 퇴보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와 비슷하게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에서 2016년 발표한 직장 내의 여성차별을 의미하는 유리천장지수에서도 한국은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가입국가인 29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여 한국사회에서의 성차별에 대해 재고해 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The Economist, 2016.3.19).

오랜 시간동안 우리나라의 여성들은 직장과 가정에서, 각종 매체에서 차별을 경험하였으며 인터넷 사이트나 커뮤니티들 안에서 다양한 방식의 여성 비하 발언을 지켜보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여성들은 이를 그저 참거나 무감각해지거나 스스로 해방구를 만드는 방식을 택했다(윤보라, 2013). 이에 대해 유민석(2015)

은 여성 혐오가 온라인 공간을 통해 최근 10년간 임계점에 다다를 정도로 기승을 부려왔으며 그 사이 한국 여성들의 인권은 더욱 퇴보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주장하여 한국사회에서의 여성혐오가 심각한 수준임을 경고하였다. 특히, 2010년 후반에 등장하여 특정 집단들에 대한 혐오표현의 주요 발화자 역할을 해온 '일베(일간 베스트)' 사이트는 인터넷을 통한 여성혐오 문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으며 끊임없이 'OO녀' 논란을 불러일으켜 왔다. 이에 따라 많은 여성들은 'OO녀'의 프레임에 의해 평가되고 소위 '개념녀'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된장녀' 혹은 '김치녀' 등의 꼬리표가 붙는 경험을 하였다. 이러한 분위기는 여성들에게 충분히 위협적인 것이었지만 'OO녀'라는 압박적인 상황 때문에 여성들은 자신의 부정적인 의견을 표현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Nussbaum(2012)은 온라인상의 여성혐오가 대상화와 핵심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 대상화란 대상을 특정 개념으로 환원하는 것, 대상의 자율성을 부인하는 것, 대상을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 등을 포함하는데(김수아, 2015), 우리나라의 'OO녀' 현상은 이러한 온라인상에서의 대상화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이 오랫동안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해결책이 부재했던 것은 이 현상이 남성들에게는 문제로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나영(2016)은 혐오의 대상이 되는 상대적 약자는 불안하고 분노하고 상처를 받지만, 상대적 강자는 유사한 감정을 느끼거나 공감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혐오문화는 상대적 약자가 저항을 시작해야만 비로소 수면 위로 떠올라 논의의 대상이 된다는 특징을

가진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여성혐오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메갈리안'이라는 집단의 등장을 시초로 한다. 메갈리안은 최초의 대중적인 여성인권 관련 커뮤니티로써 여성혐오에 분노로 맞서는 새로운 대응방식을 보여주었다. 메갈리안 이용자들은 여성 혐오를 내포하는 인터넷 상의 글들을 대상의 성별을 바꾸어 재창조함으로써 그 이질감을 통해 일반적으로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금 깨닫게 하고 여성들이 오랫동안 폭력적인 언어에 노출되어 왔음을 증명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대응방식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반감을 드러냈고 이들을 '여자 일베'라 칭하며 비판하였다. 이에 대해 윤지영(2015)은 일베 사용자들의 압도적 감정은 증오로서 그것을 하위 계급성에 위치한 이들에게 발산하는 특성을 가지지만 이에 대항하는 여성 집단의 동력은 분노라고 말한다. 이에 따르면 온라인 여성인권 커뮤니티들은 여성혐오라는 부조리에 분노하는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여성인권 커뮤니티의 회원들은 끊임없이 부조리와 싸우기 위한 활동을 다방면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회원 모두가 참여하는 대대적인 여성인권 시위나 프로젝트를 제안하기도 하고 광고에 여성혐오 표현을 사용하는 기업들의 불매운동을 벌이기도 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들이 통일된 이념을 가진 세력이며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들은 '메갈리안'부터 시작해서 여러 사이트들이 해킹되어 사라지고 다시 생기는 변화 과정 속에서 세력을 유지하였을 뿐 아니라 점점 규모를 확장해 나갔다. 이러한 온라인상에서의 활발한 움직임은 사이버 공간이 여성운동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대해 윤명희(2013)는 여성주의 정체성을 가진 개인의 경우, 가부장적 문화로 특징지어지는 오프라인 공간에 비해 비교적 자유로운 사이버 공간에서의 소통을 편안하게 여기며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SNS(Social network service)상에서 하위 문화를 형성한다고 하였다. 이는 사이버 공간이 대면적 공간에 비해 탈 위계화 되어있으며 증가된 자유도로 인해 개인의 정체성 표현이 증대되기 때문이다.

한편, 온라인 여성인권 커뮤니티들의 활동은 한국의 일반여성들 사이에서 나타난 최초의 대중적 저항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운동이 소수 엘리트 여성의 전유물로 여겨져 왔으며 대부분의 여성운동은 1987년 설립된 '한국여성단체연합'이라는 기관에 의해 지휘되어 왔다(박홍주, 2008). 이들의 목표는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마련 및 관련 정부기관의 설립으로써 빠른 시간동안 많은 정책과 법안을 만들어냈다는 성과는 인정받고 있지만 여성단체의 권력화와 여성운동의 제도화를 불러왔다는 비판도 존재한다(서두원, 2012). 이로 인해 국내 여성운동의 자율성과 비판력이 위축되었으며(박홍주, 2008), 이러한 여성운동의 위기는 한국에서의 '페미니즘의 죽음'으로 까지 거론되어 왔다. 한국의 여성운동이 혁명성과 저항성을 가진 사상으로서의 성격을 잃어버렸다는 것이다(오김숙이, 2010).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혁명성과 저항성을 가진 대중적 온라인 집단의 탄생은 단순히 하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시대적 배경을 가진 하나의 맥락으로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여성인권 이외의 다양한 주제에 대한 온라인 여성전용 커뮤니티는 '메갈리안' 이전에

도 존재해 왔으며, 이들이 행위성을 가진다는 것은 과거의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솔(2011)은 패션, 성형, 미용 등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만들어진 온라인 커뮤니티 내의 20~30대 여성 회원들이 2008년 촛불시위를 기점으로 오프라인에서의 정치적 실천을 지속해 온 사례를 발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윤명희(2013)는 우리 사회의 20~30대 여성들이 '소비주체'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상 자체를 문제화하고 정치화하는 실천을 만들어가는 '정치적 주체'임을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패션, 미용 등의 전형적인 여성성을 상징하는 주체의 커뮤니티에서 시민운동이라는 행위가 발생되었다는 사례는 온라인상의 여성 세력이 특정한 주제에 국한되지 않은 다양한 쟁점에 대항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온라인 공간에서의 새로운 여성주의 세력의 등장과 빠른 확장은 현 시대의 문제점을 반영하고 있으며 필연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메갈리안'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여성운동 세력은 이전에는 여성인권에 대해 특정한 사상을 가지고 있지 않던 일반 대중이었다는 특성을 가진다. '메르스 갤러리' 사건은 '메갈리안'이라는 집단 형성의 촉발 사건이었으나 이는 여성운동과는 상관없는 우연한 사건이었다. 2015년 여름, 한국 여성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를 퍼트렸다는 근거 없는 루머가 온라인에 퍼지면서 한국여성을 싸잡아 비난하는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경향신문, 2016.7.8). 오랫동안 여성혐오에 시달려온 한국 여성들은 이 현상을 지켜보면서 분노하였고 이를 계기로 페미니즘에 입문하게 되었다. 사실 '메르스 갤러리' 사건은 그 이전부터 만연해 있던 여성혐오 현상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으

며 그러한 사건은 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르스 갤러리가 큰 파장을 불러 온 것은 이미 한국 여성들의 분노가 한계점에 달해 있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메갈리아'에서 파생된 여성인권 관련 커뮤니티들은 약 일 년 동안 큰 세력으로 성장하면서 한국 여성들의 분노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2016년 7월을 기준으로 가장 큰 커뮤니티인 '위마드'는 약 25,000명의 회원 수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페이스북의 '메르스갤러리 저장소 3'의 구독자는 약 9200명, '메갈리아 4'의 구독자는 약 21,000명으로 나타났다(경향신문, 2016.7.8.). 또한 '레디즘', '바코드' 등 다수의 커뮤니티들이 회원들의 성향에 따라 파생되어 나갔으며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커뮤니티들은 모두 2015년 하반기 이후로 개설되었으며 커뮤니티의 회원들은 비교적 최근에 페미니즘 문화를 접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의 가치관과 성적 정체감에 대해 재고하는 과정 중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인의 페미니즘에 대한 이해와 태도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꾸준히 영향을 받고 변화한다. 이다혜(2012)는 여성운동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질적 연구에서 여성운동 그룹 내에 선형적으로 합의된 페미니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집단원들은 개인의 발언 및 행동과 그에 대한 내부 구성원들의 동의를 통해 무엇이 페미니즘인지, 무엇이 적절한 실천 양식인지를 구축해간다. 따라서 집단의 가치관은 속해 있는 집단의 영향을 받으며 변화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Baym (1998)은 커뮤니티를 연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커뮤니티에 참여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라고 하였

으며 이에 따라 정체성의 탐구를 온라인 커뮤니티 연구의 핵심으로 제안하였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들의 커뮤니티 활동 경험과 이에 따른 정체감 변화를 조사하는 것은 참여자 개인 뿐 아니라 집단의 전반적인 성향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까지 인터넷 상의 대중적 여성인권 커뮤니티나 그 주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없기 때문에 참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정체감 변화의 양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여성인권 커뮤니티 회원들을 대상으로 참여자들의 성 정체감 및 자아 정체감의 변화에 대해 조사하고자 한다.

여성인권 커뮤니티의 발생 배경과 과정

본 연구의 대상이 된 커뮤니티들은 '여성혐오를 혐오한다.' 라는 수칙을 가지고 인터넷 사이트와 오프라인에서의 시위 등을 통해 활동 중인 페미니스트 단체이다. 해당 인터넷 커뮤니티들은 2016년 이후로 개설된 사이트이지만 이것은 그 이전에 개설했던 사이트들이 해킹을 당하는 피해를 몇 차례 겪으면서 옮겨진 것이며 이들의 시초는 '디시인사이드' 라는 사이트에 2015년 5월에 개설된 '메르스 갤러리' 라는 게시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게시판은 한국에 메르스 바이러스 감염이 시작되자 관련 자료를 올리는 목적으로 개설된 것이었으나 곧 메르스 관련 자료가 아닌 여성혐오 관련 글들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되었다. 홍콩으로 여행을 갔던 한국 여성들이 메르스 검진에 협조하지 않았으며 결론적으로 한국 여성들 때문에 메르스가 전염 되었다는 근거 없는 루머가 퍼지게 된 것이다. 이는 곧 사실

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메르스 갤러리’에서는 여성에 대한 비난이 멈추지 않았다. 이에 분노한 여성들은 이미 존재하는 여성혐오적 게시물들의 주어를 남성으로 바꿔서 표현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이런 활동에 대해 남성들은 여성들이 자신들과 같은 혐오적 표현을 통해 분노를 표출할 수 있다는 것에 놀라워했으며 더욱 심한 여성혐오 발언으로 대응했다(류진희, 2015).

한편, 해당 커뮤니티들은 여성의 인권 향상이라는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파생되기 시작하였다. 급진적인 사상과 익명성을 특징으로 하는 커뮤니티에서 좀 더 온건한 표현방식을 지향하는 커뮤니티들도 생겨났으며 페미니스트 정당 창당을 목표로 오프라인에서 활동하는 정치적 모임도 개설되었다(경향신문, 2016. 7.8.). 이렇게 다양한 집단들이 등장함으로써 여성들은 여성인권이라는 주제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자신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커뮤니티와 활동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여성인권 운동이 대중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퍼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페미니즘과 자아정체감 및 성 정체감

본 연구의 대상은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여성 인권운동 커뮤니티의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의 회원들이 이전까지는 여성운동과 관련 없는 일반 대중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은 커뮤니티를 통해 페미니스트로서의 정체감을 새롭게 형성하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여성은 페미니스트가 되면서 자기 자신과 세계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인식한다(Bartky, 1975). 이는 사회구조화 되어있는 젠

더문제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시작되며(이다혜, 2012), 개인적인 것을 정치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가족관계, 연애 등의 일상생활에서부터 사회 구조에 이르기까지 이전과는 다른 관점으로 자신과 환경을 해석한다(김아령, 2007). 즉, 페미니즘을 접하게 된 개인은 세상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획득함으로써 젠더 문제뿐만 아니라 보다 전반적인 영역에서 영향을 받는다. 이들은 페미니스트로서의 자기 자신과 성 역할에 대해 인식하고 고민하면서 개인의 자아정체감 및 성 정체감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자아정체감이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함축적, 총체적, 일관적인 믿음과 느낌을 말한다. Erikson(1968)에 의하면 인간은 자신의 과거의 노력과 현재의 문제점들, 그리고 미래의 기간의 일관성을 추구하는 존재로서, 기본적으로 정체성을 추구하는 동물이라고 하였다. 즉, 인간의 삶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Erikson(1968)은 자아정체감의 발달 과정에 있어서 사회문화적 요소를 강조하였으며 한 사회와 문화에서 규정하는 행동 규율과 개인의 능력 및 적성을 어떻게 맞추는가 그 사람의 발달과 적응에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다. 즉, 개인의 정체감은 그 정체감이 형성되는 사회적 맥락과 분리될 수 없으며(Jones, 1997) 생태적으로 미리 만들어져서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형성되고 발달된다(양성은, 2005). 종합적으로 개인의 자아정체감은 자신에 대해 능동적으로 탐색하고 안정적인 가치관을 확립해가는 과정에서 발달해 가는 것이며 전 생애에 걸쳐서 변화할 수 있고 자신이 속한 사회적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것을 포함한다.

한편, 성 정체감이란 개인의 자아정체감의 핵심으로 자신의 성별을 여성 또는 남성으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개념은 생물학적 성과는 구분되며 사회문화적으로 학습하여 획득된 정체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인간은 성별화된 사회 속에서 자신의 성별과 일치하는 정체감을 형성하도록 의식적, 혹은 암묵적 압력을 받는다(천혜정, 2003). 그러나 여성의 경우, 자신의 정체감을 타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Forrest & Mikolaitis, 1986) 사회적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생물학적 성과 맞물린 남녀불평등, 가부장제, 유교 문화 등의 사회문화적 영향으로 여성의 성역할을 한정하여 정체감 혼란을 겪게 되며, 이것이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줌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적응이 어렵게 되고 삶의 만족감을 떨어뜨리게 된다(여정희, 2003). 이러한 주장과 비슷하게 천혜정(2003)은 사회적 이데올로기가 여성들에게 학업적, 사회적 성취를 요구하는 한편으로 순종적이고 전통적인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모순적인 특성을 가진다고 지적하였다. 게다가 이러한 사회적 모순은 성역할의 여러 측면에 대한 여성들 스스로의 모순된 태도로도 이어진다. 그러나 Giddens(1991)는 정체감의 발달에 있어서 환경뿐만 아니라 능동적인 선택도 중요하다고 제안한다. 정체감 형성에 있어서 개인이 아무런 갈등도 없이 자신에게 부과되는 사회적 기대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선택하고 재구성해냄으로써 이를 다양한 삶의 가능성 속에서 변화시키고 확장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성 정체성 형성 과정에 자신의 성찰적 의지를 반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종합적으로, 성 정체감의 발달은 자아정체감과 마찬가지로 전 생애에 걸

쳐 변화하며 속해 있는 환경 속에서 자신에 대해 능동적으로 탐색하고 선택하는 과정에 의해 발달된다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본 연구의 대상은 자신의 성 정체감에 대해 능동적으로 재탐색을 하고 있다는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이들은 현재 정체감 발달과정 중에 있으며 여러 분야에서의 정체감 변화를 경험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구 문제

본 연구는 인터넷 여성인권 커뮤니티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참여자들의 여성혐오에 대한 인식과 그에 대항하고자 하는 감정 및 경험을 조사하고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체감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또한, 이를 통해 참여자들의 페미니스트로서의 정체감 형성 과정에 대해 개관적 설명을 제시하며 새로운 여성운동 세력으로 떠오른 온라인 커뮤니티의 영향력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 여성인권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스스로에 대한 인식, 감정, 성 역할과 같은 자아정체감 및 성정체감의 영역에 있어서 어떤 내적 변화를 경험하였는가?

둘째, 새로운 인식 및 내적 변화에 따라 태도, 행동, 대인관계와 같은 외부적 측면에서 어떤 변화를 경험하였는가?

셋째, 자아정체감 및 성정체감의 변화에 따라 진로나 미래의 계획에 있어서 영향을 받거나 변화한 점은 어떤 것인가?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여성 인권과 관련된 인터넷 커뮤니티 중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사이트인 ‘위마드(<https://womad.me>)’와 다음카페 ‘레디즘(<http://cafe.daum.net/ladism>)’에서 참가자를 모집하였다. 해당 사이트의 자유게시판을 통해 온라인 설문조사 참여를 요청하였으며 연구의 목적과 연구의 내용에 대한 설명도 게시판의 참가 요청 글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러한 방법은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참가자들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해당 커뮤니티의 성격이 폐쇄적이고 개인정보의 보호를 중시하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의 자료 수집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본 설문을 실시하기 전에 질문의 이해도

와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2016년 11월 ‘레디즘’ 사이트를 통해 예비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예비설문에는 8명의 참여자가 응답하였다. 이후 ‘위마드’와 ‘레디즘’ 사이트에 2016년 11월부터 2016년 12월 까지 총 세 번의 모집글을 게시하였으며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온라인 설문지를 수집하였다. 56명의 사이트 이용자가 본 설문에 참가하였고 따라서 예비설문과 본 설문의 총 참가자는 64명이었다. 이 중 예비설문을 통해 수집한 8개의 데이터는 분석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56개의 본 설문의 데이터만 분석에 포함되었다. 참가자는 모두 여성이며 연령 분포는 19~43세로 평균 25.2세 이다. 참가자들의 커뮤니티 활동 기간을 살펴보면 1년 이상 활동한 사람이 41.1%로

표 1. 연구 참가자의 일반적 특징(N=56)

요인	구분	빈도(명)	백분율(%)
연령	10대	3	5.4
	20대	43	76.8
	30대	9	16.1
	40대	1	1.8
활동 기간	1년 이상	23	41.1
	6개월~1년 미만	13	23.2
	3개월~6개월 미만	11	19.7
	3개월 미만	9	16.1
접속 횟수	수시로 접속	39	69.7
	일주일에 5일 이상	8	14.3
	일주일에 3~4일	4	7.1
	일주일에 1~2일	5	8.9
	몇 주 혹은 몇 달에 한번	0	0
커뮤니티와의 가치관 일치 정도	완전히 일치 한다	14	25
	거의 일치하는 편이다	40	71.4
	일치할 때와 아닐 때가 비슷한 수준이다	2	3.6
	거의 일치하지 않는다	0	0
	계	56	100

가장 많았으며 3개월 미만이 16.1%로 나타났다. 참가자들의 커뮤니티 접속 횟수를 살펴보면, 69.7%는 해당 사이트에 수시로 접속한다고 하였으며 8.9%는 일주일에 1~2일 접속한다고 답했다. 또한, 해당 커뮤니티의 성격이 자신의 가치관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71.4%가 '거의 일치하는 편이다.', 25%가 '완전히 일치한다.', 3.6%가 '일치할 때와 아닐 때가 비슷한 수준이다.' 라고 답하였으며 '거의/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문항에는 응답한 사람이 없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참가자가 해당 커뮤니티의 가치관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의 여성인권 커뮤니티 활동에 의한 내적 변화를 자료로 얻기 위해서 양적 접근보다는 질적 접근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Hill, Thompson과 Williams(1997)가 개발한 합의적 질적 연구방법(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CQR)을 수정한 CQR-M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Modified)을 사용하여 질문지를 개발하고 자료를 수집하였다. CQR-M의 핵심사항은 인터뷰에서 자료수집방법으로써 개방적 질문을 사용하는 것이며, 이것은 참가자에게서 깊이 있는 개인적 경험사와 일관적인 정보 수집을 용이하게 한다(Hill, Knox, Thompson, Williams, Hess, 2005).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에게 개방형 설문지를 제시하여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였다. 실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게시판을 통해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참가자들의 질문에 대한 이해도

와 응답의 내용을 살펴보고 응답 내용을 참고하여 온라인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사전조사의 참여자는 본 설문의 대상인 '위마드' 사이트의 회원 8명이었고 사전조사의 응답은 본 설문지의 분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설문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해당 사이트 가입 시기와 접속 횟수를 객관식 질문을 통해 알아보았으며 '여성 인권과 관련된 커뮤니티에 가입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 참가자들이 여성인권이라는 주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해당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글이나 공지 내용들이 자신의 가치관에 얼마나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여 참가자들이 해당 커뮤니티에 얼마나 동조하는지 알아보았다. 다음으로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나타나는 정체감 변화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여러 측면에서의 변화에 대해 질문을 하였다. 이에 포함된 하위 질문들은 7개로 '여성 커뮤니티 활동 이후로 생각이나 인식, 감정 등 나의 내적 측면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것이 어떤 변화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여성 커뮤니티 활동 이후로 태도나 말투, 행동 등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를 설명해 주세요;', '여성 커뮤니티 활동 이후로 나의 가치관에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여성 커뮤니티 활동 이후로 나 스스로를 수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어떤 변화를 경험하였습니까?', '여성 커뮤니티 활동 이후로 자기 표현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여성 커뮤니티 활동 이후로 대인관계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여성 커뮤니티 활동 이후로 내가 추구하는 앞으로의 나의 모습이나 진로, 꿈에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이다.

분석절차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CQR-M 방법에 의해 이루어졌다. 기본적인 CQR은 현상학적 접근, 근거이론, 광범위한 분석과정 등을 통합시킨 연구방법으로(Hill, et, al., 2005) 기존의 질적 연구 방법을 보완하여 개발되었으며 사례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데 유용하다. CQR-M은 CQR을 기본으로 하며 CQR이 보통 8~15개의 자료를 가지고 범주화 과정을 거치는 반면 CQR-M은 다수의 표집에서 얻은 짧은 자료를 사용한다(Hill, 2005). 또한, CQR-M은 새롭고 예상치 못한 생각이나 현상에 대한 탐구에 적합하다는 특성을 가진다(안운정, 임운서, 2012). 따라서, 일반적인 질적 연구에 비해 표본수가 많고 새로운 현상에 대해 조사하는 본 연구에서는 CQR-M이 적절한 연구 방법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CQR-M에서는 CQR과 마찬가지로 자료로부터 결론을 추론하는 귀납적 방식으로 분석을 진행하며 연구팀을 구성하여 자료의 의미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한다(Hill, et, al., 2005). Hill 등(1997)에 의하면 연구팀은 자문관을 포함해야 하며 팀원은 2~4명으로 구성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상담관련 박사과정 4명이 평정 팀을 구성하고 상담관련 교수 1명이 감사자로 참여하였다. 먼저 평정자들은 각자 자료를 평가한 다음 결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논의하여 합의점을 도출해 나갔고 감사자는 최종적으로 분석내용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체감 변화에 대한 주요영역 개발

영역은 유사한 주제들에 대한 정보나 자료를 묶는데 사용된다. 연구자는 질문지의 내용

을 기초로 하여 비슷한 개념들끼리 묶은 특정한 영역 목표를 가지고 시작할 수도 있으며 이와는 달리 자료로부터 영역을 개발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Hill, et. al., 2005) 이에 대해 Hill 등(2005)은 자료로부터 영역을 도출하는 전략이 연구자로 하여금 미리 생각해낸 아이디어에 의존하기 보다는 자료에 대해 조사하도록 만드는 장점을 가진다고 제안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질문지의 내용을 보고 미리 영역을 정하지 않고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면서 영역을 개발했다. 연구자와 평정팀은 자료 분석을 위해 3회의 회의를 가졌으며 토론을 통해 자료에서 도출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영역을 합의하였다. 최종적으로 참가자들의 진술 내용에서 가입동기, 활동 이전의 모습, 내적인 변화, 외적인 변화, 미래 계획에 대한 변화의 5개의 영역이 도출되었다.

핵심개념들의 범주화

자료의 내용들을 영역별로 정리한 뒤 응답의 핵심적 내용들을 요약하였다. 핵심개념들은 자료에 근접해 있어야 한다는 Hill등(2005)의 제안에 따라 요약을 할 때 응답의 전체 맥락을 고려하였으며 연구자의 추론을 배제하였다. 요약한 뒤, 먼저 중복된 진술이나 사례들을 하나로 정리하고, 사례들 간의 유사한 핵심개념들끼리 묶어 범주화 하였다. 영역 내에 자료를 최대한 포함하는 범주 구조를 만들기 위해 연구 팀의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쳤다. 가장 효율적으로 결과를 보여줄 수 있도록 범주의 개수를 늘리거나 줄이면서 범주화 과정을 거치는데, 더 이상 범주를 합치거나 쪼갤 수 없다고 합의된 지점에서 범주를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5개의 주요영역을 중심으로 한 14개의 하위 범주들이 도출되었다.

코딩

감사자는 최종적으로 범주를 알맞게 분류하였는지, 범주 명이 내용에 적합한지, 범주 내의 핵심 내용들이 해당 범주에 부합하는 것인지 등을 확인해 주었고 이에 따라 주요 영역과 하위 범주에 기초한 코딩 틀이 정해졌다. 분석 팀은 모든 참가자들의 응답을 검토하고 응답 내용을 코딩 틀에 배치하여 코딩 했으며 각 범주의 반응 수를 해당 영역의 총 반응 수로 나눈 비율로 빈도를 표시했다(Hill, 2005). 연구 팀의 구성원은 각자 자료를 코딩한 후 결과를 교차 분석하여 알맞게 코딩 되었는지 확인하고 합의 과정을 거쳐 최종 코딩이 완료되었다.

연구결과

여성인권 관련 커뮤니티 활동을 통한 정체감의 변화경험에 대한 참가자들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5개의 주요영역과 14개의 하위범주가 개발되었고 그에 따른 반응 내용을 분류하였으며 내용의 빈도를 분석하였다. 참가자들

의 정체감 변화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주요 영역은 시간의 흐름과 변화의 전후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가입동기’, ‘활동 이전의 모습’, ‘내적 변화’, ‘외적 변화’, ‘미래의 계획에 대한 변화’로 분류하였으며 하위범주는 개인의 인식과 행동, 감정 등 변화의 영역을 구분할 수 있도록 분류하였다. 내용은 각 중심영역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참가자들의 응답을 요약하여 나타냈다.

가입동기

참가자들의 가입 동기에 대한 응답을 분석함으로써 참가자들이 여성인권과 해당 커뮤니티에 관심을 가지게 된 요인과 유입 경로에 대해 알아보았다. 분석결과 포털 사이트의 기사나 댓글 등에서 해당 커뮤니티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였거나 커뮤니티 내에서 발췌한 글을 타 사이트에서 접하면서 우연히 그 존재를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39.3%). 이들은 우연히 접한 글에서 깊은 공감을 느껴서 출처를 찾아 해당 커뮤니티에 가입하게 되었다고 보고하거나 기사, 댓글 등에

표 2. 가입동기

주요영역	범주	빈도(%)
가입동기	외부적 사건	
	- 인터넷 기사, 댓글, 타 커뮤니티 등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되어서 가입함	22(39.3%)
	- 메르스 갤러리 사건을 경험하면서 가입함	8(14.3%)
	- 지인의 추천	4(7.1%)
	내부적 요인	
	- 여성차별, 혐오, 여성대상 범죄에 대한 억울함에 가입함	14(25%)
	- 여성인권과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이 생겨서 가입함	8(14.3%)
	계	56(100%)

서 커뮤니티의 이름을 접하고 호기심에 가입했다고 하였다. 또한, 여성인권 커뮤니티들이 생겨나는 촉발사건이 되었던 ‘디씨인사이드’의 메르스 갤러리 사건을 지켜보면서 억울함을 느껴 그곳에서 파생된 커뮤니티에 자연스럽게 가입하게 되었다는 응답도 14.3%로 나타났다. 외부적 사건에 대해 응답한 참가자들은 가입의 계기가 되는 사건을 경험하기 이전에는 여성인권 커뮤니티에 대해 관심이 없던 대중적인 인터넷 이용자였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반면 내부적 요인에 의해 가입한 참가자들은 가입 이전부터 여성차별, 여성혐오에 염증을 느껴왔으며 늘어나는 여성대상 범죄에 대해 억울함을 느꼈다고 보고하였다(25%). 또한 예전부터 여성인권과 페미니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가치관을 나누기 위해 가입했다는 참가자들도 있었는데(14.3%) 이들은 외부적 사건을 경험한 참가자들과는 달리 가입 이전부터 여성인권에 대해 특정한 가치관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되었다.

활동이전의 모습

커뮤니티 가입 전의 참가자들의 인식과 행동, 성 정체감에 대한 내용을 나타내는 주요 영역이다. 이 대범주는 질문지에 직접적인 질문의 형태로 들어가 있지는 않았으나 참가자들의 응답에서 자신의 과거 모습에 대한 보고들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활동 이전의 모습’이라는 영역을 따로 분류하였다.

부정적 성적체감

참가자들은 자신이 여성이라는 것에 대한 혐오감, 피해의식, 불안감등의 부정적 정서를 느꼈던 것으로 나타났다(8.9%). 또한 자신이 여성이라는 것을 지나치게 자각하고 삶의 여러 측면에서 여성성에 초점을 맞춰 왔음을 보고하였다(5.4%).

사회적 영향과 압박

참가자들은 여자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

표 3. 활동 이전의 모습

주요영역	범주	빈도(%)
활동 이전의 모습	부정적 성적체감	
	- 여성성에 대한 부정적 정서를 가짐	5(8.9%)
	- 여성성을 지나치게 자각했음	3(5.4%)
	사회적 영향과 압박	
	- 성적, 도덕적 코르셋에 갇혀 나를 뜯어고치려 했음	24(42.9%)
	- 사회적 기준에 의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	6(10.7%)
	- 우리나라를 떠나고 싶었음	1(1.8%)
	타인 의식	
	- 외모, 행동에 대한 타인의 평가에 지나치게 신경을 썼음	11(19.6%)
	- 원치 않았지만 여성스럽게 꾸미고 행동했었음	6(10.7%)
	계	56(100%)

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압력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높은 비율로 보고하였다. ‘여자는 예뻐야 한다.’, ‘여자는 착하고 유순해야 한다.’ 등의 암묵적인 규칙을 커뮤니티 내에서는 코르셋이라고 칭하고 있었으며 자신들이 그 틀 안에 갇혀 있었고 커뮤니티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자신이 갇혀 있었다는 사실조차 잘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고한 경우가 많았다(42.9%). 또한 이에 응답한 참가자들 중에는 자신의 모습이 사회적으로 정해진 미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못생겼고 가치 없다고 비하 하거나 성형이나 다이어트 등을 통해 자신을 바꾸려고 시도 했다는 사람도 있었다. 직장에서도 주변사람들에게 여성이라는 이유로 실제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경험도 보고 되었으며(10.7%), 사회적 기준에 익숙해져서 여자보다는 남자를 더 신뢰성 있고 유능한 존재로 여기는 남성 우월 주의적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참가자도 있었다. 한편, 차별받는 현실과 그것이 바뀔 수 없다는 무력감 때문에 우리나라를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응답도 나타났다(1.8%).

타인의식

참가자들은 과거에 자신이 타인에게 어떻게 보이는지에 지나치게 신경을 많이 써왔으며 주변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듣기 위해 원치 않는 노력을 해왔다고 응답했다(19.6%). 또한 이들은 타인과 자신의 의견이 다를 때 상대방의 비위를 거스르게 되거나 여자답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들을까 봐 타인에게 순응해 버렸다고 보고하였다. 사회적으로 여성스럽고 바람직하다고 평가되는 모습을 갖추기 위해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화장과 여성스러운 의상, 구두 등을 고집해 왔다는 응답도 나타났다(10.7%).

내적 변화

해당 영역은 참여자들의 내적 변화를 나타내며 이는 주체로서의 자신을 자각하고 여성주의 정체감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을 묘사한다. 이 영역에서는 내적 변화의 요소들을 세분화 하여 살펴보았다.

인식의 변화

많은 수의 참가자들은 커뮤니티 활동을 하면서 이전에는 미처 몰랐던 대상이나 사건들에서 성차별적 요소를 발견하는 일이 많아졌으며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는 여성혐오적 표현들에 보다 예민해 졌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인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의 여성인권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고 평등한 인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고 보고했다. 여기에는 인권문제에 대한 초점의 범위가 확장되어 여성들뿐만 아니라 소외계층이나 성소수자 등 다른 차별받는 사람들의 입장도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는 내용도 나타났다. 이러한 인권과 관련된 인식의 변화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33.9%). 한편, 참가자들은 자신에게 내재화된 성 고정관념과 남성우월주의를 버리기 위해 노력하였고, 실제로 이전보다 평등하고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였다(30.4%). 또한 여기에는 여성이기 때문에 보호를 받거나 책임을 피하려 하는 등 혜택을 받으려는 것들도 평등에 위배된다는 의견들이 포함되었다. 한편, 사회적 기준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자신의 장점과 중요성에 대해 깨닫게 되었다는 응답도 나타났다. 이로 인해 참가자는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재평가 하고 자신의 독특성을 발견하며 이전과는 달리 여성성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었다는 내용들도

표 4. 내적 변화

주요영역	범주	빈도(%)
내적 변화	인식의 변화	
	- 여성의 인권문제, 여성혐오에 대한 인식이 증가함	19(33.9%)
	- 성별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에서 벗어남	17(30.4%)
	- 나에 대해 긍정적으로 재평가가 하게 됨	11(19.6%)
	- 나의 성별보다 한 주체라는 것에 집중하게 됨	9(16.1%)
	계	56(100%)
	자기수용에서의 변화	
	- 스스로에게 관대해지면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게 됨	29(52.7%)
	- 더 이상 스스로를 몰아붙이거나 괴롭히지 않게 됨	12(21.8%)
	- 자신의 존재에 자부심을 느끼고 스스로를 사랑하게 됨	10(18.2%)
	- 스스로를 책임감 있는 사회의 일부로 여기게 됨	2(3.6%)
	- 자신에 대해 전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이해하게 됨	2(3.6%)
	계	55(100%)
	감정의 변화	
	- 분노, 혼란, 죄책감과 같은 부정적 감정에서 벗어남	22(42.3%)
- 행복감, 자신감, 해방감 등 긍정적 감정을 느낌	20(38.5%)	
- 같은 생각을 가진 여성들이 있다는 것에 위안 받음	10(19.2%)	
계	52(100%)	

포함되었다(19.6%). 여성이라는 것에 얽매어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던 것에서 벗어났으며, 성별을 떠나 주체성을 가진 하나의 존재로 여기게 되었다는 응답들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참가자들은 보다 독립적으로 생각하며 명확한 가치관을 가지게 되었다고 보고한다(16.1%).

자기수용에서의 변화

높은 비율의 참가자들이 여러 측면에서의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스스로에게 관대해졌다고 보고하였다(41.8%). 그동안 나쁘게 생각하고 고치려고 해

왔던 부분들이 더 이상 거슬리지 않게 되었으며 스스로에게 가해왔던 비판과 부정적 감정을 거둬으로써 자신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는 내용들이 나타났다. 이는 위의 ‘인식의 변화’ 범주에 포함된 ‘나에 대해 긍정적으로 재평가 함’과는 차별되는 내용으로, 전자는 자신에 대한 정의나 평가와 같은 인식적인 면이 긍정적으로 바뀌었음을 나타내는 반면 이 범주에서의 응답은 스스로에 대한 감정이나 느낌 등 정서적인 내용이 포함된다.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스스로의 존재에 자부심을 느끼고 사랑하게 되었다는 응답들이 나

타났는데(18.2%) 이는 전자의 내용보다 조금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기 수용의 형태를 나타낸다. 스스로를 괴롭히고 뉘달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1.8%로 나타났으며 자기수용의 수준이 증가됨에 따라 자신이 원치 않는 것을 추구하거나 현재의 상태를 비하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의미한다. 한편, 자신의 존재뿐만 아니라 감정이나 생각에 있어서도 보다 잘 인식하고 수용하게 되었다는 응답들도 나타났다(10.9%). 이들은 어떤 감정이나 욕구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 수동적이고 때로 죄책감을 느끼기도 했으나 지금은 자신의 감정을 명확히 느끼고 그것을 받아들여지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감정의 변화

커뮤니티 활동을 하면서 부정적 감정에서 벗어났다는 보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42.3%). 여기에는 여성이라는 것을 더 이상 부정적 특성으로 여기지 않게 되거나 자기비하를 멈춤으로써 죄책감이나 불안감 등에서 벗어났다는 내용과 차별에 대항하기 시작하면서 억눌린 분노가 해소되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커뮤니티 활동을 하면서 행복감, 자신감, 해방감 등의 긍정적 감정을 느꼈다는 응답도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38.5%). 이러한 긍정적 감정에는 커뮤니티 활동 자체에서 느끼는 즐거움이나 소속감 같은 일차적 감정과 자신의 변화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해방감, 자신감과 같은 이차적인 긍정적 감정들이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커뮤니티를 시작하면서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를 받았다는 응답이 다수 나타났다(19.2%). 참가자들은 자신이 진보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편이 되어줄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더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하였다. 또한, 예전부터 페미니즘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참가자들은 차별에 분노하는 자신이 사회 부적응자인 것처럼 느껴졌는데, 커뮤니티에서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알게 되고 큰 위안이 되었다고 보고했다.

외적 변화

해당 대범주는 개인의 태도나 행동, 대인관계 등 관찰 가능한 변화의 내용을 포함하며 참가자들의 응답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이는 참가자들이 자신의 정체감 변화를 외부로 표현하는 측면이며 여성주의에 대한 실천성과 관련된다.

태도변화

참가자들은 전반적으로 자신에 대한 타인의 평가에 크게 신경 쓰지 않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41.1%).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지 신경을 덜 쓰면서 자기검열을 덜 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전보다 여유롭고 자연스러운 태도를 가지게 되었다는 내용들이 포함되었다. 또한 참가자들은 더 이상 예쁜 척, 착한 척 등의 가장하는 태도를 통해 타인에게 환심을 사려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당당하고 똑똑한 인상을 추구하게 되었다는 범주가 나타났다(30.4%). 이들은 유순하고 약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이 스스로 원한 것이 아니며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답했다. 또한,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지식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면서 사회문제나 상식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스스로의 차별적 태도를

표 5. 외적 변화

주요영역	범주	빈도(%)
외적 변화	태도 변화	
	- 나에 대한 타인의 평가에 신경을 덜 쓰게 됨	23(41.1%)
	- 순종적인 것 보다는 똑똑하고 당당해 보이는 태도를 추구함	21(37.5%)
	- 여성을 비하하거나 차별적인 사람에게 더욱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됨	12(21.4%)
	계	56(100%)
	행동 변화	
	- 행동의 주체가 나 자신이 됨	25(44.6%)
	- 여성혐오나 차별에 실제적 행동으로 대항함	19(33.9%)
	- 자기주장과 감정표현을 잘 하게 됨	12(21.4%)
	계	56(100%)
	대인관계 변화	
	- 나와 뜻이 맞는 사람과 가까워지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과는 멀어지면서 대인관계가 정리 됨	22(41.5%)
	- 여성들에게 더 돈독한 유대감을 느끼게 되고 가까워 짐	18(34.0%)
- 여성을 차별하는 사람들과 갈등을 겪음	8(15.1%)	
- 나와 비슷한 뜻을 가진 새 친구들이 생김	5(9.4%)	
계	53(100%)	

고치게 되었다는 내용들이 나타났다. 반면, 권 위주의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남녀 차별적인 언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전보다 더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었다는 범주가 나타났다 (21.4%).

행동변화

행동의 주체가 타인에서 자신으로 바뀌었다는 응답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44.6%), 이는 위에서 보고된 타인의 평가에 신경을 덜 쓰게 되었다는 태도의 변화와 연결되는 행동적 변화인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참가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그

것을 수행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해왔던 원치 않는 다이어트, 화장 등을 그만 두었다는 응답도 있었다. 한편, 참가자들은 여성차별이나 혐오적 발언, 행동 등을 접했을 때 예전에는 참았지만 지금은 직접적으로 반감을 표현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도 여성 인권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알리고 그들을 설득하거나 시위에 참여함으로써 여성혐오나 차별에 대해 실제적으로 대항한다는 보고가 다수 나타났다(33.9%). 자기주장과 감정표현을 이전보다 잘 하게 되었다는 응답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21.4%). 이 범주에는 자신의 욕구를 숨기지 않고 드러낼 수 있게 되었으며 예전에는 부정적 감정표현이나 거절을 못했는데 이제는 할 수 있다는 내용들이 포함되었다. 이에 대해 참가자들은 여성들에게 강요되는 특유의 화법이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더 이상 자신의 의견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거나 애교스럽게 말하지 않고 대신 명확하고 자신감 있게 말하려 한다고 보고했다.

대인관계 변화

생각과 행동이 변하게 되면서 자신의 모습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과는 멀어지고 비슷한 성향을 가진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자연스럽게 인간관계가 정리되었다는 응답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41.5%). 이 내용에는 특정 커뮤니티 활동을 한다는 것만으로 친구가 자신을 멀리하게 되었다는 내용들이 포함되었으며 많은 남성들이 자신의 변한 태도에 반감을 드러냈다는 응답도 있었다. 그러나 이 범주에 대해 보고한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자신의 대인관계 변화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가 정리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는 보고가 많았으며 자신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지인과 관계를 지속시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하였다. 대신, 같은 뜻을 가지거나 이해해주는 사람들과 더 돈독해지면서 전반적인 대인관계의 만족도는 더 높아졌다는 보고들이 많았다. 또한, 참가자들은 여성들에게 이전보다 더 유대감과 동질감을 느끼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돈독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34.0%). 이와 관련하여 참가자들은 ‘여자의 적은 여자다.’, ‘여자는 질투심이 많다.’ 등의 사회적 편견이 여성들이 서로를 적대시 하게 만들고 여

성들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커뮤니티 활동을 하면서 같은 뜻을 가진 새 친구를 사귀게 되었다는 참가자도 있었다(9.4%). 한편, 전통적이고 순종적인 여성성을 요구하는 사람들과 마찰이 생기거나 멀어졌다는 범주도 나타났다(15.1%). 참가자들은 결혼이나 연애, 육아 등에 있어서 희생을 강요하는 남자들, 혹은 부모님과 잦은 의견충돌을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직장에서도 여성이란 이유로 부당한 일을 시키거나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들과 갈등을 경험했다는 보고들도 있었다.

미래에 대한 계획

개인의 정체감 변화는 진로나 미래에 대한 계획, 추구하는 목표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해당 범주의 분류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참가자들의 변화를 알아보는 것에 더하여 그러한 변화가 미래에 어떤 형태로 지속될 것 인지를 예측할 수 있다.

성역할 변화. 많은 참가자들은 이전과 달리 여성들도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47.2%). 한 참가자는 지금까지는 남성들이 더 일을 잘하고 더 전문적일 것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여성들을 더 신뢰한다고 하였으며,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앞으로는 여성들의 사회적 활동이 남성들을 능가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하였다. 한편, 앞으로의 계획에 있어서 결혼이나 출산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을 것이라는 보고들이 나타났다(38.9%). 참가자들이 평균나이 25세의 여성들임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이러한 변화는 참가자들의 전반적인 삶의 계획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표 6. 미래에 대한 계획

주요영역	범주	빈도(%)
미래에 대한 계획	성역할 변화	
	-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됨	17(47.2%)
	- 결혼과 출산에 대한 압박감에서 벗어남	14(38.9%)
	- 성역할로 인한 희생을 거부함	5(13.9%)
	계	36(100%)
	진로계획	
	- 높은 직업적 성취와 사회적 성공에 대한 욕심이 생김	32(66.6%)
	- 여성인권과 관련된 진로계획이 생김	7(16.7%)
	- 여성이기 때문에 포기했던 진로에 다시 도전함	2(4.8%)
	계	41(100%)
	지속적 정체감 변화	
	- 더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함	24(60.0%)
	- 미래의 여성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함	16(40.0%)
계	40(100%)	

으로 보인다. 이 내용 안에는 특정 나이에는 결혼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 결혼을 선택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는 응답들이 있었으며 비혼, 비 출산을 결심하였다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성역할로 인한 희생을 거부하겠다는 범주가 나타났는데(13.9%) 결혼을 하더라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커리어를 포기하거나 가사활동을 전담해서 하지는 않겠다는 응답들이 있었다.

진로계획. 전문성을 갖추고 직업적으로 성공하고 싶다는 범주가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66.6%), 참가자들은 이를 위한 진학이나 자격증 취득, 해외유학 등 자기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참가자들은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돈과 권

력에 대한 욕구, 성공에 대한 야망 등을 잘 가지지 않는 것처럼 알려져 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성공에 대한 욕구는 남성들과 동등하지만 사회적 구조 때문에 남성들에 비해 그것을 실현시키기가 어려울 뿐이라고 하였으며, 여자가 자신의 성공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부적절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표현을 덜 하게 된다는 보고도 있었다. 여성인권과 관련된 기관으로의 취업이나 여성주의와 관련된 작품 활동의 계획 등 여성인권 향성을 위한 구체적인 진로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응답도 나타났다(16.7%). 전반적으로 참가자들은 진로 계획에 있어서 직업적 성공이나 여성인권과 관련된 활동 등을 통해 다른 여성에게도 용기를 주고 전반적인 여성인권 향상에 기여

하고 싶어 하였다. 또한, 여성이기 때문에 포기했던 진로에 대해 재도전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고도 나타났다(4.8%).

지속적 정체감 변화. 참가자들은 앞으로는 스스로를 위해 살아가는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사람이 되겠다고 응답하였다(57.5%). 지금까지는 진로나 다른 삶의 계획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규범들을 따르려고 했지만 앞으로는 스스로 원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이라고 하였으며 더 이상 하고 싶은 일에 있어서 나이나 성별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내용들이 나타났다. 또한 참가자들은 지속적으로 여성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더 나은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볼 것이라고 하였다(40%). 이 범주에는 기부나 여성인권 운동 참여와 같은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 변화에 기여하겠다는 내용과 직업적으로 성공함으로써 다른 여성들에게 모범이 되고 싶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여성인권과 관련된 커뮤니티 가입 여성들이 커뮤니티의 활동을 통해 경험하는 정체감의 변화에 대해 세부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참가자는 인식이나 행동, 대인관계, 미래에 대한 계획 중 하나 이상의 분야에서 변화를 경험하였다고 응답했다. 보고된 변화 내용 중에서도 높은 빈도를 보인 내용은 여성인권에 대해 민감한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과 여성혐오, 차별에 실제적으로 대항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나타나 참가자들이 이전보다 적극적으

로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타인의 평가에 덜 민감해지고 자신의 욕구에 충실해졌다는 내용도 높은 빈도로 나타났는데 이는 참가자들이 자신의 주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Marcia(1980)의 이론에 적용시켜보았을 때 참가자들이 경험한 변화는 정체감 발달과정을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Marcia(1980)는 정체감 발달과정 속에서 개인은 정체감의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는데, 이는 자신이 속한 사회의 가치관에 대한 고민과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숙고를 포함한다고 하였다. 이 단계에서 개인은 자신이 택할 수 있는 여러 가치관이나 대안들을 탐색하게 되고, 적합한 것을 스스로 선택함으로써 주체성을 획득하게 되며, 정체감 성취의 단계로 발달해 나갈 수 있게 된다.

참가자들은 커뮤니티 활동을 시작하기 전까지 사회나 타인의 기준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것에 맞추기 위해 살아왔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스스로 탐색하고 선택하는 과정을 거치지 못한 자아정체감의 상태로써, Marcia (1980)의 이론에 따르면 '유실' 단계의 자아정체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천혜정(2003)은 여성들이 자신의 가치를 남성의 시각과 기준에 의해 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여성은 자신의 자아를 직시하지 못하고 수동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참가자들은 행동과 인식에 있어서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지는 이상적인 '한국여자'라는 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자신을 맞춰왔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대해 일부 참가자는 어린 시절부터 너무나 익숙하게 자신을 맞춰왔기 때문에 그 틀이 자신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조차 깨닫지 못한다고 지적하였다. 이

러한 보고들을 종합해보면, 한국 여성들에게는 정체감 발달 과정에 있어서 탐색의 기회가 매우 제한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자아 정체감 및 성 정체감이 '유실' 상태에 머무를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그러나 적절한 탐색 과정을 거치지 못했던 참가자들은 커뮤니티에서의 활동을 통해 자신의 가치관을 다시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고 보고한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준을 버리고, 대신 스스로 새로운 가치관을 선택함으로써 정체감 성취의 단계로 발달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체감 성취 지위의 개인은 건강한 심리적 특성을 보이며 높은 수준의 직업적 개입과 진로발달 수준을 보인다(Blustein, Devenis, & Kidney, 1989). 본 연구의 참가자들도 인식과 가치관에서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우울, 죄책감과 같은 부정적 감정에서 벗어나고 스스로를 사랑하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자신의 특성 중 사회적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들을 더 이상 부정하지 않고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는 보고가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자아정체감이란 개인이 자신의 독특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갖는 안정된 느낌을 말하는데(Adams & Shea, 1979), 참가자들의 이러한 보고는 획일화된 기준에서 벗어나 자신의 독특성을 받아들임으로써 진정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이를 수용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한편, 정체감 구조가 발달함으로써 개인은 의사결정, 문제해결, 경험과 자기 관련 정보를 해석하고 판단하는 참조의 틀을 얻을 수 있게 되는데(Berzonsky, Cicciuch, Duriez, & Soenens, 2011) 이와 관련된 보고들도 다수 나타났다. 참가자들은 나에 대한 타인의 평가에 신경을 덜 쓰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참가자들에

게 타인의 평가가 더 이상 참조의 틀로 작용하지 않으며, 대신 주체적인 틀을 형성해가고 있음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참가자들은 행동의 주체가 나 자신이 되었다고 보고하였으며 삶의 가치관이 보다 명확해졌다고 말한다. 이러한 변화는 미래에 대한 계획에도 영향을 주어 많은 참가자들이 내가 원하는, 나를 위한 삶을 살겠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인상적인 것은 여러 분야의 변화에 있어서 참가자들에게 사회적 관심의 증가와 사회적 기여에 대한 욕구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여성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차별받는 다른 이들에 대해서도 이해하게 되었다는 보고나 자신을 사회의 일부로 지각하게 되었다는 보고는 사회적 관심의 증가를 나타낸다. 게다가, 여성인권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고 싶다는 의견이 많은 참가자들에게서 나타났는데 이런 욕구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여성차별에 실제적으로 대항하게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신의 말이나 행동에 보다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다는 응답들도 나타나 전반적으로 자신의 심리사회적 성숙 수준이 높아졌음을 보고하고 있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참가자들은 나와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과 더 가까워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멀어지면서 인간관계가 정리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런 과정을 통해 참가자들은 새로운 대인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단편적으로 보면 이러한 변화는 참가자들의 사회적 관계가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참가자들은 자신의 대인관계가 이전에 비해 만족스럽고 안정적이라고 진술한다. 차별과 부당함을 참아가면서 불필요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보다는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더 만족스럽다는 것이다. 또한, 참가자들은 커뮤니티 안

에서 안정감과 소속감을 느끼고 다른 회원들에게 애정을 느낀다고 하였는데 이는 자신이 활동하는 커뮤니티가 새로운 사회적지지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내용을 고려해 볼 때, 커뮤니티 활동은 참가자들에게 타인과의 마찰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견디고 자신의 가치관을 유지하게 하는 사회적 자원으로써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전 연구들에 의하면 성 정체감 및 자아정체감은 진로와 관련된 중요한 변인으로 인식되어 왔으며(안권순, 한건환, 2002) 진로탐색 행동 및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Gianakos, 1995).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의 진로계획에 있어서도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변화가 나타났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관련된 응답을 얻을 수 있었다. 참가자들은 높은 비율로 자신의 진로에 있어서 이전보다 높은 목표를 가지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참가자들이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고 주체성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나타난 변화인 것으로 보인다. 많은 참가자들은 결혼을 하고 나이를 먹더라도 자신의 정체감을 잃고 싶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자신의 생계를 타인에게 의지하고 싶지 않다고 하였다. 독립적인 생계 유지에 대한 필요성은 참가자들로 하여금 더 많은 수입과 안정적인 직업에 대해 고려하게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직업적 분야에서의 자아실현을 위해 더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고 높은 지위로 승진하고 싶다는 보고들도 많이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참가자들은 여성들도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직업에 있어서의 성공과 권력에 대한 욕구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진로계획 변화에 대해 응답한 많은 참가자들은 자신의 직업적 성취가 다른 여성들

에게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였으며, 사회적으로 성공한 여성이 많아질수록 여성 인권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보고하였다.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진로선택에 있어서 자신의 성별에 더 큰 영향을 받으며 남성들에 비해 더 많은 장벽들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윤 덕, 탁진국, 이상희, 2009). 그러나 본 연구의 참가자들은 이러한 장벽을 넘어 진로 계획에 있어서 이전보다 더 개인의 가치관에 부합하고, 높은 목표를 설정하며 사회적 책임감을 가진다는 특성을 보였다. 이러한 특성은 높은 진로성숙 수준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데, 이기학(1997)에 따르면 진로 성숙은 진로선택에 대한 확고함과 준비 수준, 주체적인 결정, 높은 차원의 목표지향, 선택한 진로에서의 성공에 대한 믿음과 관련된다. 참가자들은 자신의 미래와 진로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자신의 선택에 확신을 가지며, 교육이나 자격증 취득, 정보수집 등 실제적인 준비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업을 통해 자아실현을 이루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분야에 있어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표현한다. 이는 이기학(1997)이 제안한 높은 진로성숙 수준의 특성을 잘 나타내주는 것으로 보인다.

종합적으로 참가자들에게 여성인권 관련 커뮤니티 활동은 사회적, 개인적 가치에 대한 새로운 탐색과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정체감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참가자들이 보고한 여러 분야에서의 변화는 온라인을 통한 개입이 개인의 가치관을 변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침을 보여줌으로써 앞으로의 여성 운동에 있어서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한다. 그러나 참여자들의 진술을 통해 나타난 커뮤니티

티 활동과 이전의 여성운동가들의 활동을 비교해 볼 때, 온라인 커뮤니티의 여성운동은 사회적응에 대한 전략적 요소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다혜(2012)는 사회적으로 페미니즘이라는 개념이 매우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지적하였고 오프라인의 여성운동가들의 경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전략들을 구축해왔음을 밝혔다. 또한 이들은 페미니스트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도 유연한 특성을 가진다. 기본적인 가치관을 유지하면서도 상황에 따라 페미니즘을 보다 온건한 방식으로 표현하여 타인을 설득하거나, 때로는 정체성을 감추기도 한다. 이러한 전략들은 현실에서의 수많은 시행착오와 연습을 통해 획득된다. 하지만 본 연구의 참가자들은 자신과 성향이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는 내용의 진술을 함으로써 다소 급진적인 성향을 드러냈다. 또한, 참여자들이 남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비해 오프라인의 여성 운동가들은 보다 타협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성인권 증진과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는 활동가들의 생애사를 연구한 차경희(2017)는 현실적으로 남성과의 완전한 평등을 이룰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일상에서의 성역할 조율과 작은 실천들을 하는 것이 여성주의 가치라고 제안하였다. 종합적으로 오프라인 여성운동가들의 진술이 현실적, 타협적인 것에 비해 온라인의 여성운동가들의 진술은 보다 비판적이며 비타협적인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오프라인과는 달리 온라인에서는 현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지 않으며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자신의 억압된 분노를 가감 없이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그대로 현실에 적용하거나 오프라인의 여성운

동과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다. 온라인상에서의 여성의 자기표현 행위는 오프라인의 행위와는 비교되는 고유한 특성을 가지며 온라인에서의 글쓰기 활동을 통해 힘 돋우기 경험을 하게 되거나(Merskin, 2005), 대안적인 정체성을 구성하는 등(Grisso & Weiss, 2005)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내기도 한다. 따라서 김수아(2008)는 인터넷 상에서의 여성의 행위를 비판론이나 낙관론의 이분법적 관점으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여성 커뮤니티에서의 글쓰기는 주로 여성의 억압적 경험에 대한 분노와 저항적 실천을 표현하는 형태로 나타나며 이러한 서사 방식은 조선시대의 규방가사에도 드러날 만큼 전통적인 여성적 글쓰기의 특징이다. 또한 여성들은 자기서사의 글쓰기를 통해 삶을 성찰하고 대안적이고 저항적인 정체성을 형성한다(김수아, 2008). 즉, 참여자들의 진술에 나타나는 분노나 극단적 표현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자기서사를 통한 감정의 정화와 대안적 정체성 구성의 측면에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 외에 기존의 여성운동가와 본 연구 참여자들의 전반적인 정체성 구성 과정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경희(2017)는 오프라인 여성주의 운동가들의 정체성 형성 과정을 제안하였는데, 이들은 불평등한 현실을 체감함으로써 페미니즘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새로운 시각으로 과거나 현재의 환경을 재해석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사회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며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주체로서의 '나'의 정체감을 형성해 간다. 이러한 내용은 본 연구 참여자들의 진술에서도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주제이며 온라인을 통해서도 여성주의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참여자들은 정체성을 표현하는 양식에 있어서 기존의 여성운동가들과 유사한 특성을 보였다. 오프라인의 여성운동가들은 여성주의에 대해 주변사람들에게 알리고 후배들을 교육하며 다른 차별받는 여성들을 돕는 방식으로 여성주의를 실천한다(차경희, 2017). 이는 자신의 여성주의 정체성을 주변으로 확장시키는 것이며 연대를 중요하게 여기는 여성주의의 가치관에 부합한다. 마찬가지로 본 연구 참여자들도 커뮤니티의 회원들뿐만 아니라 같은 여성들에게 동지애를 느낀다고 진술하였으며 주변사람들에게 자신의 가치관을 전한다는 사례들을 보고하였다. 더 나아가 이들은 여성인권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찾거나 관련된 진로를 선택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속적인 실천 의지를 보여주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의 변화의 분야와 변화의 결과에 대해서만 보여주었으며 그 내부에 있는 변화 요인에 대해서는 자세히 파악하지 못했다는 제한점을 가진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 있어서는 참가자들의 변화 과정에 대한 보다 상세한 조사와 변화의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참가자들의 경험과 변화를 개인적, 주관적 차원에서만 해석함으로써 그것이 사회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들의 변화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사회적 맥락에서 적응적이고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 보다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제한적인 참여자 모집으로 인해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많은 여성인권 관련 커뮤니티 중에서도 일부 커뮤니티에서 표집 되었

으며 따라서 온라인상의 여성운동을 전반적으로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추후 연구에 있어서는 일반화를 위해 보다 다양한 집단의 더 많은 참여자들의 표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김서영 (2016.7.8). “페미니즘 전위 ‘메갈리아’ 1년...‘혐오’를 ‘혐오’로 지우려 한 그녀들은 유죄인가”. 경향신문.
- 김수아 (2008). 온라인 글쓰기에서의 자기 서사와 정체성 구성. 한국언론학보, 52(5), 56-82.
- 김수아 (2015). 온라인상의 여성 혐오 표현. 페미니즘 연구, 15(2), 279-317.
- 김아령 (2007). 페미니스트 정체성 형성 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1225-1240.
- 김희강 (2006). 서구 페미니즘 이론의 동향과 쟁점, 글로벌 맥락에서의 한국 페미니즘에 미치는 의미. 21세기정치학회보, 16(2), 27-50.
- 류진희 (2015). 한국 사회와 성; “촛불 소녀”에서 “메갈리안” 까지, 2000년대 여성 혐오와 인종화를 둘러싸고. 사이먼 SAI, 19(1), 41-66.
- 박홍주 (2008). 한국 여성운동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성찰과 소통, 여성운동 새로 쓰기. 여성학논집, 25(1), 211-218.
- 서두원 (2012). 젠더 제도화의 결과와 한국 여성운동의 동학. 아세아연구, 55(1), 162-192.
- 안권순, 한건환 (2002). 청년기의 개인 특성,

- 성 역할 정체감,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13(2), 73-102.
- 양성은 (2005). 지방대학생의 자아정체감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5), 171-180.
- 여정희 (2003). 여대생이 경험한 여성의 의미. *대한간호학회지*, 33(1), 34-41.
- 오김숙이 (2010). 한국 여성운동과 차이 문제: 2000년대 새로운 '여성주의운동'을 중심으로. *여성이론*, 22(1), 106-129.
- 유민석 (2015). 혐오발언에 기생하기: 메갈리아의 반란적인 발화. *여성이론*, 33(1), 126-152.
- 윤 덕, 탁진국, 이상희 (2009). 공학계 여대생과 인문계 여대생의 성역할 정체성, 진로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4(4), 497-514.
- 윤명희 (2013). 소셜네트워크에서 여성주의 정체성의 복합적 수행. *페미니즘 연구*, 13(1), 131-169.
- 윤보라 (2013). 일베와 여성 혐오. *진보평론*, 57(1), 33-56.
- 윤지영 (2015). 전복적 반사경으로서의 메갈리아 논쟁. *한국여성철학*, 24(1), 5-79.
- 이기학 (1997). 고등학생의 진로태도성숙과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이나영 (2016). 여성혐오와 젠더차별, 페미니즘, 강남역 10번 출구를 중심으로. *문화와 사회*, 22(1), 147-186.
- 이다혜 (2012). 대학 내 여성주의 운동과 정체성 형성: 2010년대 대학생 활동가의 경험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 이 술 (2011). 20-30대 여성들의 정치 참여 경험을 통해 본 여성주체성에 관한 연구: 온라인 '여성 삼국' 커뮤니티 회원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임윤서, 안윤정 (2016). 여대생의 자기성찰에서 드러난 '여성으로서 일'의 의미 탐색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1(2), 195-228.
- 차경희 (2017). 구술생애사를 통해 본 여성활동가들의 여성주의 정체성 형성과정.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 천혜정 (2003). 한국 여대생의 성 정체감 내면화 과정. *대한가정학회지*, 41(9), 149-161.
- Adams, G. R., & Shea, J. A. (1979). The relationship between identity status, locus of control, and ego development.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8(1), 81-89.
- Bartky, S. L. (1975). Toward a phenomenology of feminist consciousness. *Social Theory and Practice*, 3(4), 425-439.
- Baym, N. K. (1998). The emergence of on-line community. *Cybersociety*, 2(1), 35-68.
- Berzonsky, M. D., Cieciuch, J., Duriez, B., & Soenens, B. (2011). The how and what of identity formation: Associations between identity styles and value orientation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0(2), 295-299.
- Blustein, D. L., Devenis, L. E., & Kidney, B. A. (1989). Relationship between the identity formation process and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6(2), 196-202.
-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W. W. Norton & Norton.
- Forrest, L., & Mikolaitis, N. (1986). The relational

- component of identity: An expansion of career development theory.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35(2), 76-88.
- Gianakos, I. (1995). The relation of sex role identity to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6(2), 131-143.
- Giddens, A. (1991). *Modernity and self-identity: Self and society in the late modern age*. Stanford University Press.
- Grisso, A. D., & Weiss, D. (2005). *Girl wide web: girls, the internet, and the negotiation of identity*. 32-49. *New york*: Peter Lang.
- Hill, C. E., Thompson, B. J., & Williams, E. N. (1997). A guide to conducting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5(4), 517-572.
- Hill, C. E., Knox, S., Thompson, B. J., Williams, E. N., Hess, S. A., & Ladany, N. (2005).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An updat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2), 196-205.
- Holland, J. (2006). *Misogyny: The world's oldest prejudice*. *New York*: Running Press Book Pub.
- Jones, G. S. (1997). *Virtual culture: Identity and communication in cybersociety*. *London*: Sage.
- Marcia, J. E. (1980). Identity in adolescence. *Handbook of adolescent psychology*, 9(11), 159-187.
- Merskin, D. (2005). *Girl wide web: Girls, the Internet, and the negotiation of identity*, 51-67. *New york*: Peter Lang.
- Nussbaum, M. C. (2012). *The new religious intolerance*. Harvard University Press.
- Ueno, C. (2012). 여성혐오를 혐오한다. 서울: 은행나무
- "The best and worst place to be a working woman", *The Economist*, 2016. 3.19.
-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16" *World Economic Forum*. 2016.10.26.
- 1차원고접수 : 2017. 04. 23.
심사통과접수 : 2017. 09. 08.
최종원고접수 : 2017. 09. 10.

Research on changes in sexual identity and
ego identity through women's online human rights community:
Focused on CQR-M

Bo Young Oh

Sang Hee Lee

Department of Industrial & Organizational Psychology, Kwangwoon university

In recent years, the problem of women's hatred through the Internet has reached a serious level in Korean society, and concerns about low female human rights are increasing. As a result, in 2015, a popular online community of women responding to such social discrimination has begun to emerge, and it has been continuing its change and development until now. Members of the community shared their values on the Internet and expressed their opinions through offline demonstrations which had a great social impact and this activity is defined as a second generation women's movement. However, the understanding of women's online human rights community is very fragmented because no specific research has been conducted on them yet.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participants had a new perspective as they were exposed to feminism, and they were experiencing changes in self - identity and sexual identity. Therefore, in this study, we segmented the domain of change and structured the participants' statements and discussed their meanings. In addition, we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feminine movement through online by comparing the identity formation process and activity patterns of the existing women activists with the statements of the participants

Key words : Internet, low female human rights, women's online human rights community, consensual - qualitative research method